

가야토기 樣式論*

박 광 춘**

〈목 차〉

- I. 머리말
- II. 고고학 분류체계에 있어 型式과 樣式の 개념
- III. 二大 樣式論의 문제점 검토
- IV. 加耶樣式 정립
- V. 가야 小樣式(지역양식)
- VI. 맺음말

국문요약

가야토기의 대표적 양식론은 낙동강 동·서안양식론과 대가야양식론이 있다. 1960대에 발표된 김원룡의 낙동강 동·서안양식론에서 알 수 있듯이 양식이라는 용어는 오래전부터 사용하여 왔으나, 樣式 개념을 설정한 다음 이것을 제대로 적용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것은 필자를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이 고고학의 분류체계 속에서 樣式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용도의 지표인 形式(form), 시간·공간적 지표인 型式(type)과 양식(style)을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樣式的 개념을 더욱 이해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우선 型式(type)과 양식 개념을 정리한 다음 二大 樣式論에 있어 樣式 개념과 해석에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김원룡의 낙동강 동·서안양식론은 樣式 개념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동안양식(신라토기)에 비해 서안양식(가야토기) 설정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대가야양식론도 樣式 개념 설정이 잘못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실제 대가야양식론을 전개하는데 있어 설정된 樣式이 합천, 남원, 함양, 하동, 여수 등의 고분에서 출토되고 있다는 것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아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을 검증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원룡의 낙동강 동·서안양식론에 문제가 된 서안양식을 중형호의 한 型式인 無蓋長頸壺의 경부 형태를 부각시켜 고배와 함께 새롭게 설정하였다. 섬진강을 중심으로 하는 대가야양식론은 새롭게 정립한 樣式 개념인 “동반하는 두 기종 이상의 型式의 조합”에 의거하면 검증이 안되는 학설이라는 것을 밝혔다. 동시에 각 지역 고분군 출토 廣口長頸壺를 시간적 지표로 삼아 여러 정치체를 복원을 시도해 보았다.

新羅樣式에 대비되는 새로운 加耶樣式을 중형호의 한 型式인 無蓋長頸壺와 고배에 의거하여 설정하였으며, 각 지역 양식(소양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역사고고학에 있어 문헌기록은 절대적으로 신뢰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무시해서도 안 된다. 다만 새롭게 설정된 양식론이 『三國遺事』 五伽耶條에 보이는 5가야 국명과 『本朝史略』의 5가야 국명 외에 『日本書紀』 神功紀 加羅 7국명과 欽明紀 任那 10국명의 실체를 어느 정도 반영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가야토기, 樣式, 동반, 型式 조합, 小樣式

I. 머리말

가야토기를 기반으로 하는 대표적 양식론은 낙동강 동·서안양식론과 대가야양식론이 있다. 낙동강 동·서안양식론은 한국 고고학의 선구자인 김원룡이 제창한 양식론으로 고고학에 입문하면 제일 먼저 접하는 이론 중에 하나이다. 이 이론은 낙동강을 기준으로 고배·장경호·기대에 의해 가야토기와 신라토기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했으며, 동시에 같은 토기 樣式을 공유하는 분포권은 동일한 정치체로 인식하게 되는 모델이 되었다. 대가야양식론은 1980년대 이후에 제기된 이론으로 토기 양식이 비슷하면 같은 정치체라는 김원룡의 양식론과 비슷한 점도 있지만, 가야 서부지역인 섬진강을 중심으로 동일 문화권을 상정하고 있어 방법론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二大 樣式論은 가야토기 연구 뿐 아니라 정치체 해석에 있어 그대로 반영됨에 따라 5세기에 있어 가야의 동쪽은 낙동강 동·서안양식론에 의해 가야토기 양식의 기준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가야 서쪽인 섬진강 주변지역은 대가야양식론에 의해 토기 문화 및 정치체의 복원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二大 樣式論은 가야 토기문화 뿐 아니라 정치체 해석에 있어서 너무 많은 영향력을 과시한 나머지 오히려 『三國遺事』 五伽耶條의 5가야 국명과 『本朝史略』의 5가야 국명 외에 『日本書紀』 神功紀 加羅 7국명과 欽明紀 任那 10국명의 기록은 무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고고학은 물질문화의 연구를 기반으로 역사를 복원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역사 고고학에 있어 문헌자료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樣式이라는 용어는 오래전부터 사용하여 왔고 현재에도 무의식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樣式 개념을 설정한 다음 이것을 제대로 적용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특히 가야 고고학의 정치체 설정에 있어 앞에서 설명한 二大 樣式論이 큰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다른 시각에서 가야 정치체를 해석하는 시도는 쉽지 않다. 과연 二大 樣式論에 있어 樣式 개념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이것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체의 해석은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의외로 二大 樣式論은 물론이고, 다른 연구에서 樣式 개념을 정의한 다음 樣式을 설정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것은 많은 연구자들이 고고학의 분류체계 속에서 樣式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용도의 지표인 形式(器種)과 시간·공간적 지표인 型式과 樣式을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樣式의 개념을 더욱 이해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낙동강 동·서안양식론은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공간에 의해

신라와 가야 정치체를 반영하고 있어 공간의 지표인 型式과 개념이 중복된다. 본고에서는 型式과 樣式 개념을 정리한 다음 가야토기 二大 樣式論에 있어 樣式 개념과 해석에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만약 二大 樣式論에 있어 樣式 개념과 해석에 있어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새롭게 樣式 개념을 설정한 후 대안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II. 고고학 분류체계에 있어 型式과 樣式 개념

우리나라 고고학에 있어 樣式이라는 용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김원룡은 그의 저서 『新羅土器 研究』에서 5세기 이후 6세기의 樣式 변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때의 樣式은 고배의 형태·문양 등의 속성 변화를 설명하고 있어 지금의 型式과 같은 개념을 사용했다.¹⁾ 한국 고고학의 초창기였던 그 당시에서는 분류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樣式과 型式에 대한 개념 정립이 확실하지 않았다. 이 후 김원룡은 樣式이라는 용어를 시간의 지표가 아닌 신라토기와 가야토기를 구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공간적 지표로 사용하였다.²⁾ 이 후 한국 고고학에 있어 樣式은 낙동강 동·서안이라는 공간의 지표와 함께 신라·가야라는 정치체를 구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한국고고학의 발전과 함께 토기 분류에 있어 용도에 의한 구분이 필요하게 되어 器種이라는 분류단위를 사용하게 되었으나 일부 학자는 形式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다.³⁾ 形式(器種·form)은 일본 고고학에서 용도의 지표로서 사용하고 있는 분류단위로서 시간·공간의 지표인 型式(type)과 발음이 같아 만약 우리나라에서 사용한다면 혼동을 가져온다.⁴⁾ 이 때문에 일본에서도 발음을 달리 하기 위해 일부러 形式을 케이시킴으로 型式을 카타시킴으로 발음한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形式을 類型式으로 바꾸어 부를 것을 제안하였다.⁵⁾ 토기 연구에 있어서는 形式 대신에 器種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型式과 혼동

1) 김원룡, 『新羅土器 研究』, 을유문화사, 1960.

2) _____, 『韓國考古學概說』, 一志社, 1986.

3) 이희준, 『토기로 본 大伽耶의 圈域과 그 변천』, 『加耶史研究 -대가야의 정치와 문화-』, 慶尙北道, 1995, 373쪽.

4) 田中琢, 『型式學の問題』, 『日本考古學を學ぶ(1)』, 有斐閣選書, 1985.

5) 박광춘, 『加耶土器의 分類單位 設定과 編年』, 『伽倻文化』 7, 加耶文化研究院, 1994, 186~187쪽.

을 초래하는 形式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시간·공간의 지표인 型式(type)이 가끔 樣式의 개념과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여기에서는 型式과 樣式 개념을 먼저 이해해 두고자 한다.

1. 집합체로서의 시간·공간의 지표인 型式

1903년 발표된 O. Montelius의 型式學은 型式을 생물학의 種과 같은 개념으로 보고, 種이 진화하듯이 형식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천(진화)한다고 생각했다. 型式을 시간 순서로 나열하는 기준은 흔적기관을 사용하였다. 진화론의 영향에 의해 탄생한 型式學은 그 당시 획기적인 방법론이었으며, 지금도 고고학 입문자에게는 꼭 알아두어야 할 방법론이다. Montelius 型式學의 위대한 점은 형식은 작업가설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꼭 검증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型式으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20세기 초를 풍미한 이러한 방법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게 되어 국외·내 학자들의 비판을 받게 된다. 이 중 이희준은 型式이 시간적으로 중복되지 않는 것과 빈도 개념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型式學의 대안으로 순서배열법을 제시하였다.⁶⁾ 순서배열법은 앞에서 지적한 단점을 보완하고 있으나, 이 방법도 완전하지 않아 짧은 시간에 형성된 많은 유적들을 대상으로 해야 가능하다. 즉 아메리카 인디언처럼 이동이 잦은 문화를 가진 경우는 적용이 쉽지만 농경을 기반으로 정주 집락이 많은 한국 문화에서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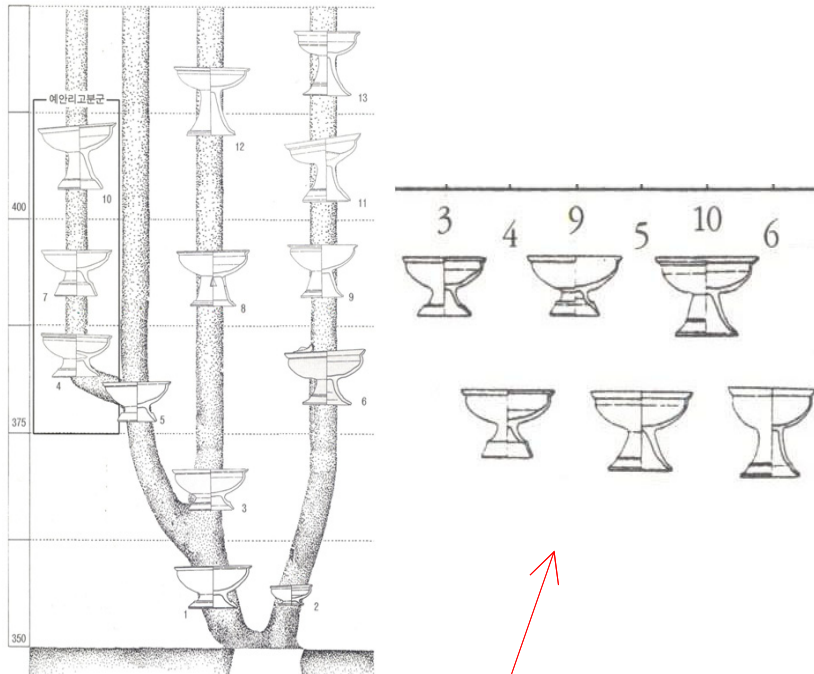
그래서 필자는 O. Montelius의 型式學의 대안으로 수리형식학을 제안한 바 있다.⁷⁾ 수리형식학은 型式이 집합체라는 개념을 바닥에 깔고 型式을 구분한다. 즉 O. Montelius의 型式學에서 부족한 빈도 개념을 보완한 것이다. 그리고 Montelius 型式學에서 빈도개념이 전혀 없다는 것은 과장된 것이다.⁸⁾ 型式 분류에서는 빈도 개념이 없을지 모르지만 O. Montelius가 아주 중시한 동반유물에 의한 검증방법에 있어 빈도 개념이 들어 있다. 동반유물에 의해 型式을 확정하는데 있어 1~2에 동반되는 경우 시간적 지표로서 型式은 암시에 지나지 않으며, 30에 이상 동반되어야만 비로소 검증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⁹⁾

6) 이희준, 『形式學的 方法의 問題點과 順序配列法(seriation)의 檢討』, 『한국고고학보』14·15, 한국고고학회, 1983.

7) 박광춘, 『수리 형식학의 모색』, 『영남고고학』20, 영남고고학회, 1997.

8) 이희준, 위의 논문, 1983.

9) 박광춘, 『새롭게 보는 가야고고학』, 학연문화사, 2006.



도 1. 외절구연무개고배의 型式 분류 비교

인공물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고고학은 型式 분류가 왜곡되면 이것을 기준으로 복원된 역사와 문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¹⁰⁾ 이 때문에 시간의 지표인 型式은 시간적 속성에 의해 분류되어야 하며, 역연대의 추정도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연구자들의 型式 분류를 보면 형태가 약간 다르면 型式이 다른 것으로 쉽게 분류하고 있다. 그 위에 어떠한 근거도 없이 역연대를 추정하고 있다. 도 1에서 두 연구자의 금관가야의 무개고배 型式 분류를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다.¹¹⁾ 위는 계통수에 의한 무개고배의 型式 진화를 설명한 분류이긴 하지만 型式에 있어 집합체라는 개념이 없다. 아래는 10개 속성을 계측하여 클라스타분석한 것인데 집합체를 이루는 B그룹은 형태가 약간 달라도 같은 그룹 즉 型式으로 분류하고 있다.¹²⁾ 기계에 의한 대량생산이 아닌 수작업에 의해 같은 날짜에 생산된 토기라도 도공의 기분에 의해 형태가 다를 수 있다.¹³⁾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형태가 약간만 다르면 다른 型式으로 분류한다면 1년에 유행하는 형식은 수십 개가 될 수 있으며 型式의 유행기간도 연구자 마음대로 1개월 혹은 그보다 더 짧게 추정할 수 있다.

고고학에서 型式은 어떠한 기준(속성)에 의거하여 모아 놓은 집합체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인간(Homo sapiens sapiens)을 型式으로 비유한다면 인간의 분류 기준은 두발로 걷는 동물이다. 이것에 의해 약 65억명의 인간을 하나의 種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라는 種(型式)은 서로 닮은 사람이란 사람도 없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種을 설명할 때, 거인이고 난쟁이고 관계없이 그림책에서 인간을 대표해서 한 명의 인체사진으로 설명하고 만다.

집합체로서 어느 일정한 시간에 생산되어 유행하는 型式은 일정 공간에서 유통된다. 이 때문에 型式은 시간 외에 공간의 지표도 포함하고 있다. 예로 들면 도 1의 B그룹은 4세기 전후 김해 금관가야에서 유행한 外切口緣短脚無蓋高杯로 명명된 型式이다. 이것과 동일 시간대에 함안 아라가야에서는 工字形脚附無蓋高杯가 유행한다.¹⁴⁾ 고배 중에서 외절하는 구연부를 가진 무개고배의 경

10) 예로 들어 5세기의 가야 역사와 문화를 논하면서 4세기 고고학 자료를 사용한다면 가야 역사와 문화는 얼마나 왜곡되었는가?

11) 박광춘, 『가야토기의 시원과 김해·부산지역 토기 편년 재검토』, 『영남고고학』27, 영남고고학회, 2000 ; 조성원, 『土器文化로 본 三國時代 洛東江 河口的 交流樣相』, 『삼국시대 남해안지역의 문화상과 교류』, 한국고고학회, 2011.

12) 다변량해석의 한 수법인 클라스타분석도 어떤 속성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형식 분류는 불가능하다.

13) Clive Orton, 『MATHEMATICS IN ARCHAEOLOGY』, William Collins Sons & Co, Ltd, 1980.

14) 박광춘, 『3~4세기에 있어 가야토기 지역색 연구』, 『한국상고사학보』24, 한국상고사학회,

우 금관가야의 지역색을 표출하며, 각부가 工字形을 이루는 무개고배는 함안의 아라가야의 지역색을 나타낸다. 동시에 외절구연의 무개고배의 각부 길이가 짧으면 시간적으로 4세기 전후를 가리키는 지표가 되지만 길이가 길면 4세기 후반의 지표가 된다. 즉 구연부가 外切한다는 속성은 금관가야라는 공간적 지표를 나타낼 뿐 아니라 각부와 함께 4세기라는 시간적 지표도 반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型式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반영하는 樣式과 가끔 혼동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시간적·공간적 개념을 반영하고 있는 型式과 樣式の 개념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명확히 구분해야 된다.

2. 종래의 樣式 개념

생물학의 분류체계에서 계급은 종·속·과·목·강·문·계로 이루어져 복잡한 반면 이것을 응용한 고고학의 계급은 2개로 의외로 단순하다. 예로 들어 토기 분류체계를 생각할 경우 型式을 최하위의 계급이라고 하고, 그 상위의 계급은 器種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고고학의 분류 계급이 단순한 것은 용도를 가장 우선시하여 분류하기 때문이다.

樣式을 한국 고고학에서 처음 사용한 연구자는 김원룡이다. 김원룡은 5세기 이후 낙동강을 중심으로 이단교호투창고배와 대부장경호를 대표로 하는 동안양식(신라토기)과 이단직렬투창고배와 유개장경호를 대표로 하는 서안양식(가야토기)으로 구분하고 있다.¹⁵⁾ 그러나 이 양식론의 근간이 되는 『新羅土器 研究』에서는 樣式을 시간의 지표로 사용하기도 하였다.¹⁶⁾ 이 후 한국고고학에 있어 樣式이라는 용어는 뚜렷한 개념 정립 없이 학자의 주관에 따라 다분히 편의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가 하면, 외국 논고를 인용하여 기술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樣式的 개념이 모호한 연구도 있다.¹⁷⁾ 여기에서는 우선 樣式을 이해하기 위해 과거 연구에서 樣式 개념이 어떻게 정립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樣式은 토기 분류체계의 가장 기본적인 계급인 器種·型式과는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계급을 확장시킬 수는 없다. 왜냐하면 고고학 분류에 가장 먼저 시도하는 것이 용도에 의해 분류이고, 그 다음은 시간과 공간에 의한 분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인공물의 용도가 정해지고 시간과 공간에 의한 위치도 정렬된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1995.

¹⁵⁾ 김원룡, 앞의 책, 1986.

¹⁶⁾ _____, 앞의 책, 1960.

¹⁷⁾ 이성주, 『新羅·加耶 土器樣式的 生成』, 『한국고고학보』72, 한국고고학회, 2009.

추구할 것이 있다면 어떤 집단의 생활상 혹은 어떤 정치체의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이다. 특히 가야의 경우 한 국가로 통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정치체의 문화를 복원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樣式이란 같은 시간에 유행하는 다양한 인공물들에 대한 조합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樣式을 일정 공간 내에 있어서 여러 집단 생활상을 반영하는 공통된 類型式(器種)으로 통합한 분류단위로서 서로 다른 類型式(器種)의 型式 조합이며, 토기에 있어서는 낙동강 동안양식과 서안양식으로 구별하여 부르는 것처럼 공간과 시간을 중시한 개념으로 정의한 바 있다.¹⁸⁾ 하지만 지역색 연구의 型式과 樣式 연구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종래의 양식론과 차별성을 확립하지 못했다. 이 외에 이희준도 樣式에 대한 개념을 한 기종 혹은 形式 복합체 또는 形式 조합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이것을 적용한 연구 성과는 많지 않다.¹⁹⁾ 왜냐하면 形式은 器種과 같이 용도를 구분하는 계급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바뀌는 문화상을 반영할 수 없다.

Ⅲ. 二大 樣式論의 문제점 검토

한국고고학에 있어 대표적인 토기 양식론은 김원룡의 낙동강 동·서안 양식론과 대가야양식론이 있다. 이들 두 양식론은 지리적으로 보면 가야 동부·서부라는 차이점 때문에 분리해서 양식론을 논하였고 있지만 사실 토기에 의한 정치체를 상정하는 것은 같지만, 방법론을 적용하는데 있어 모순을 가지고 있다. 즉 낙동강 동·서안 토기 양식론은 고배와 장경호에 의해 정치체를 구분한 반면, 대가야양식론은 유개장경호에 의해 동일 정치체로 통합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5세기 가야의 동쪽과 서쪽에 있어 二大 樣式論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 설정되었는지 문제점을 검토한다. 만약 二大 樣式論에 있어 양식이 잘못 설정되어 있다면 새로운 양식 개념을 설정할 것이다.

1. 낙동강 동·서안 양식론

낙동강 동·서안 양식론을 제창한 김원룡은 5세기 신라토기와 가야토기는 양식상 낙동강에 의해 확연하게 구별되지 않지만, 대체로 서안과 동안에는 지역

¹⁸⁾ 박광춘, 앞의 논문, 1994, 186~187쪽.

¹⁹⁾ 이희준, 앞의 논문, 1995.

적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²⁰⁾ 그 근거로서 장경호와 고배를 들었다. 이 후 분류기준이 되는 세부적 속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언급했는데 장경호는 문양, 건부의 형태, 대(권족) 접속의 유무에 의해, 고배는 문양, 투창의 배치, 개의 꼭지 형태 등이다.²¹⁾ 1960대는 정식 발굴 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토기의 기형과 그 외의 속성을 기준으로 신라와 가야의 정치체를 구분했다는 것은 대단한 업적이었다. 다만 아쉬운 점은 樣式의 개념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었다. 낙동강 동·서안 양식론이 발표된 시점은 우리나라 고고학이 초창기였으므로 토기의 편년과 분류 체계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당연히 型式 분류 뿐 아니라 토기 분류 체계에 있어 계급에 대한 개념도 정립되지 않았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고배와 장경호는 서로 다른 계급이므로, 같은 계급으로 설정하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표 1. 가야토기 분류체계

계급 (category)	분류군(taxon · taxa)
상위계급: 器種(form) · 類型式 · 形式-용도의 지표	고배, 기대, 중형호(中形壺) , 개배
하위계급: 型式(type)-시간 · 공간의 지표	단경호 → 중경호 → 무개장경호 → 유개장경호

필자는 고배의 경우 型式의 상위 계급인 類型式(器種)으로 설정한 반면 장경호는 중형호의 한 型式으로 설정하고 있다. 김원룡도 서안양식에 해당하는 장경호는 기대에 얹혀진다고 하였다. 기대에 얹혀지는 호는 장경호 외에 3~4세기에 유행하는 단경호와 중경호도 있다. 필자는 기대와 동반하는 토기를 중형호로 명명하고 中形壺는 短頸壺 → 中頸壺 → 長頸壺로 型式 분류하였다.²²⁾ 그 후 장경호가 앞의 型式에 비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유행하므로 장경호를 다시 3小型式으로 분류하였다.²³⁾ 한국 고고학의 초창기인 1960년대는 型式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부족했기 때문에 고배에 대한 型式은 고려하지 않고, 이단투창고배를 그냥 고배로 부르게 된 것 같다. 만약 김원룡이 型式에 대한 개념을 확립한 다음 이단투창고배와 장경호로 구분하여 樣式 문제를 제기했다면 앞 장

20) 김원룡, 앞의 책, 1960.

21) _____, 앞의 책, 1986.

22) 박광춘, 『韓國陝川地域における土壙墓出土土器の編年的研究』, 『古文化談叢』22, 1990.

23) _____, 앞의 논문, 1994.

에서 언급한 樣式의 개념을 반영한 연구가 될 수 있었다.

이 외에 서안양식의 지표인 이단직렬투창고배 분포 범위인 김해, 함안, 진주, 고령 중에서 김해는 빠져야 한다. 금관가야의 중심지인 김해에서 이단직렬투창고배는 4세기에 유행하게 되며, 5세기에는 동안양식과 같은 이단교호투창고배로 변화하므로 고배 투창에 의한 동·서안양식 설정은 김해에서는 적용시킬 수 없다. 1960대에는 김해지역 출토 토기 자료가 소수에 불과하여 4세기의 고배 型式과 5세기 고배 型式을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불가능했으므로, 4세기에 유행하는 이단직렬투창고배를 5세기에 유행하는 고배로 추정했기 때문이다. 가야 토기 편년은 지금도 학자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5세기 금관가야 토기의 투창은 이단교호투창유개고배가 유행한다. 따라서 김원룡의 양식론은 현재 가야토기와 신라토기를 구분하는 절대적 기준은 될 수 없으므로 신라토기와 대비되는 새로운 가야토기 樣式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대가야양식론

대가야양식론은 우지남이 대가야고분 편년을 시도하면서 처음으로 언급하였다. 樣式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은 없으나 유개장경호·기대·개를 대가야토기로 비정한 후, 5세기 후반에 거창·남원·함양·합천·진주 등에서 출토되는 토기를 대가야양식토기로 설정하였다. 그 배경에는 이들 지역이 대가야 정치권으로 흡수됨에 따라 대가야(고령)토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상정했다.²⁴⁾ 그 후 많은 학자들이 대가야토기의 편년에 힘을 기울였으며 더불어 가야 서부지역의 고분에서 고령 지산동 출토 토기와 비슷한 토기가 출토되는 것은 이들 지역이 정치적으로 대가야 연맹에 소속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대가야양식론을 더욱 확대시켜 가야 정치체를 해석하는데 있어 根幹이 되는 대가야연맹설로 발전시키게 되었고, 여기에 문헌학자들이 가세함에 따라 더욱 대가야양식론은 공고한 학설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런데 대가야양식론은 가야 서쪽 지역을 하나의 정치체로 통합된 것으로 해석한다면 『三國遺事』와 『日本書紀』에 보이는 수많은 정치체는 무엇인가? 이들 정치체가 국명은 유지하면서 정치력과 토기 문화가 대가야에 예속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과연 대가야양식론에 있어 樣式 개념이 바르게 정립되어 적용되고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될 것이다. 대가야양식에 대한 연구는 많은 학자들이 시도하였지만 樣式 개념을 명확히 한 연구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

24) 우지남, 『대가야고분의 편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중에서 이희준은 비교적 樣式의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세히 정의하고 있다. “樣式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제작 전통 하에서 생산되어 공통적 양식적, 기술적, 형태적 특성을 가진 토기들의 形式 복합체 또는 形式 조합”으로서 고령양식의 토기라는 말은 “고령 토기 양식에 속하는 한 器種(形式) 또는 다수 기종의 토기를 지칭하게 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고령 토기 樣式 기준을 지산동고분 출토 토기로 삼으면서 대표적 고령양식 기종은 이단직렬투창유개고배, 일단투창유개고배, 일단다투창고배, 통형기대, 고배형기대, 저평통형기대, 고리형기대, 유개장경호, 개배, 유개중경호, 무개장경호, 대부파수부소호, 대부양이부완, 파수부호, 우각형파수부발, 단경호, 편구호, 호리박형토기, 단추형꼭지유충문개를 들었다.²⁵⁷

박천수도 이희준의 樣式 개념을 그대로 차용하면서, 덧붙여 양식을 시·공간적 개념으로 받아들였다.²⁶⁷ 이 후 대가야양식을 5세기 초 지산동고분군 조영 개시와 함께 이 고분군에서 출현하는 고배, 개배, 파수완, 장경호, 단경호, 기대를 지표로 하고 있다.²⁷⁷ 대가야양식론을 주장하는 다른 연구자의 樣式 개념은 확실하지 않아 알 수 없지만 대체로 지산동고분 출토 토기를 지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대가야양식론에서 우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樣式의 실체이다. 樣式은 시간의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특정한 시간을 제시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고령 토기 특징을 응축해서 표현하는 분류단위가 되어야 한다. 만약 이희준이 설정한 樣式 개념에서 양식이 고령양식에 속하는 한 기종이라면 굳이 樣式이라는 개념이 필요 없다. 금관가야의 외절구연무개고배와 같이 한 型式으로 樣式을 정의하면 된다. 나아가 대가야양식 器種으로 구분한 이단직렬투창유개고배, 일단투창유개고배, 일단다투창고배는 器種名이 아닌 型式名이며, 대가야에서만 유행하는 토기도 아니다. 가야에서는 어느 지역에서도 흔히 볼 수 있으며, 보통 이러한 토기를 그냥 고배라고 한다.

토기 분류에 있어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이 용도이며, 표 1에서와 같이 용도의 지표인 器種(形式)은 최상위계급이 된다. 최상위 계급인 기종에 해당하는 가야토기 분류군(taxa)은 고배, 기대, 중형호, 개배 등으로 명명된 많은 기종명이 있다. 이단직렬투창유개고배, 일단투창유개고배, 일단다투창고배는 고배에 속하는 하위 계급인 型式(type)명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종(形式)명은 될

257 이희준, 앞의 논문, 1995.

267 박천수, 『토기로 본 대가야권의 형성과 전개』, 『대가야의 유적과 유물』, 대가야박물관, 2004.

277 _____, 『5~6세기 대가야의 발전과 그 역사적 의의』, 『고령지산동44호분』, 경북대학교박물관,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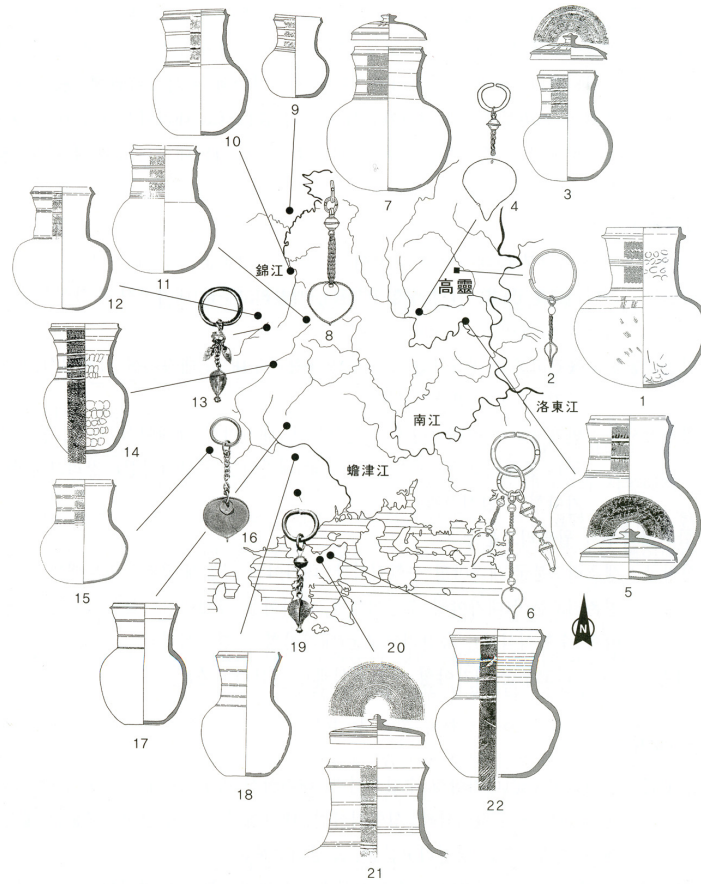
수 없다. 그리고 樣式을 形式 복합체 또는 形式 조합으로 정의되어 진다면 대가야양식은 形式으로 조합을 구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배와 기대로 대가야양식을 구성한다면 이 樣式 개념에는 시간 뿐 아니라 대가야 토기의 특징이 들어갈 여지가 없게 된다.

박천수의 樣式 개념은 이희준의 樣式 개념을 차용하고 있다. 다만 양식을 시·공간적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이희준의 樣式 개념에서 추가된 것이다. 그런데 形式(器種) 복합체 혹은 形式(器種) 조합으로는 용도의 지표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型式(type)과 같이 시·공간적 지표가 될 수 없다. 形式(器種) 조합으로는 고고학에서 무엇보다 중요시 하는 시간의 변천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대가야양식의 성립을 박천수는 5세기 초로, 우지남은 5세기 후반으로 보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樣式의 지표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그 위에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樣式 설정에 있어 지산동고분군 출토 토기 중에서 대부분의 기종을 열거하고 특징을 설명한 후 이러한 기종이 가야 서부지역에서 출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²⁸⁾

고고학 분류체계에 있어 樣式은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너무 많은 기종으로 樣式을 설명하면 토기를 전공하는 학자도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박천수가 설정한 지산동고분군 출토 고배, 개배, 파수완, 장경호, 단경호가 거창, 함양, 함천, 산청, 의령, 남원, 장수, 임실 등의 고분군에서 일괄유물로 출토되고 있다는 것이 검증되어야 대가야양식론은 성립한다. 그러나 이들 고분군에서는 이러한 기종이 출토되는 예는 많지 않다. 설령 지산동고분 출토 토기와 비슷한 것이 출토된다고 해서 최초에 이러한 토기가 고령에서 생산되어 유통되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결국 박천수는 이러한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 2에서와 같이 유개장경호와 금제수식부이식에 의해 대가야양식의 확산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금제수식부이식과 유개장경호가 어떤 근거에 의해 대가야양식의 지표가 될 수 있는가? 대가야양식의 지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유물들이 대가야에서 가장 먼저 생산되어 다른 지역으로 유통시켰다는 구체적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유개장경호도 자세히 분석하면 시간에 따라 型式 변화하며, 지역색을 가지고 있다. 중형호의 한 型式인 유개장경호에 의해 대가야양식론의 기준으로 삼는 것과 교호이단투창유개고배에 의해 新羅樣式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같은 이치이다.²⁹⁾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교호이단투창유개고배는 新羅樣式의 절

²⁸⁾ 박천수, 앞의 논문, 2009.

²⁹⁾ 이성주, 앞의 논문, 2009.



1, 2. 高靈 池山洞(嶺)40號 石槨墓 3, 4. 陝川 碓溪堤가A號墳 5. 陝川 玉田M3號墳 6. 玉田28號墳 7, 8. 咸陽 白川里1號墳 9. 鎮安 黃山里古墳群 10. 長水 三顯里5號墳 11. 南原 斗洛里1號墳 12. 任實 金城里1號墳 13. 長水 鳳棲里古墳群 14. 南原 虎景里古墳群 15, 16. 谷城 芳松里古墳群 17. 求禮 龍頭里古墳群 18. 順天 回龍里古墳群 19. 順天 雲坪里M2號墳 20, 21. 麗水 敲樂山城 22. 麗水 美坪洞古墳群

도 2. 토기와 장신구로 본 대가야 권역 (박천수, 2009)

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5세기를 전후로 중형호의 한 형식인 無蓋長頸壺가 臺附長頸壺로 형식 변화하는 것은 신라토기만의 특징이라면, 無蓋長頸壺에서 有蓋長頸壺로 형식 변화하는 것은 가야토기만이 가지는 특징이다. 그런데 이것을 대가야양식의 기준으로 삼아 유개장경호만 출토하면 대가야양식으로 설정한다면 김해 대성동고분군과 창녕 교동고분군에서 출토되는 유개장경호도 대가야양식 영향 아래에 만들어진 것일까? 마치 금관가야 고분에서 이단교호투창고배만 출토되면 신라의 정치적 영향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과 같다.

가야의 유개장경호는 중형호의 한 型式으로 短頸壺 → 中頸壺 → 無蓋長頸壺 → 有蓋長頸壺로 型式 변천한 것이다. 즉 가야 고배에 있어 無蓋高杯가 型式 변천하여 有蓋高杯가 출현하는 것처럼, 無蓋長頸壺가 型式 변천하여 有蓋長頸壺가 출현한 것이다. 장경호가 유행하는 지역은 가야 전 지역이므로 대가야에서 장경호가 변천하여 유개장경호가 가장 먼저 출현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더욱이 가야에서 가장 연대가 빠른 유개장경호는 4세기 후반으로 편년되는 김해 대성동 1호 부곽 출토품이다.³⁰⁾ 만약 대성동 1호 목곽묘 출토 유개장경호와 지산동 출토 유개장경호는 다른 형식이라고 한다면 도 2에서 제시한 지산동고분군 출토 유개장경호와 다른 지역 유개장경호도 같은 형식이 아니다. 가야 유개장경호는 4세기 후반에 출현하여 6세기 가야가 멸망할 때까지 약 200년간 유행한다고 가정하면, 수많은 型式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검증 없이 형태에 의한 분류를 통해 型式을 양산한다면, 유개장경호도 수십 개의 型式을 만들 수 있다. 도 2에 제시된 유개장경호도 다양한 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시간대에 유행한다고 할 수 없다.

유개장경호·기대·개에 의해 설정한 우지남의 대가야양식 기준도 고령지역 고분에서만 적용되지 남원, 거창, 함양, 진주 등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 樣式이라는 분류단위도 型式과 같이 정해진 기준에 의거하여 분류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준이 소위 대가야양식이 유행하는 지역 전체에 적용되어야 한다. 예로 들어 남원 월산리고분군 중에서 가장 큰 매장시설에 속하는 M1-A호 석곽에서 출토된 소가야양식의 고배와 개를 예외적인 것으로 해석 한다면 과학적 학문으로서의 고고학이 아니다.³¹⁾ M1-A호 석곽 출토 고배와 개는 엄연히 소가야양식이며, 유개장경호도 지산동고분 출토품과 완전히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을 대가야양식이 유행하는 지역으로 소속시킨다면 양식의 개념을 만들 필요가 없다.

IV. 加耶樣式 정립

가야 대표적인 二大 樣式論은 대단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앞 장에서 지적했다. 우선 양식론을 전개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시급히 설정해야 할 과제는 양식 개념 설정이다. 토기 연구에서 용도의 지표인 器種과 시간·공간

³⁰⁾ 경성대학교박물관, 『金海大成洞古墳群IV』, 2010.

³¹⁾ 박광춘, 『월산리고분 문화의 재조명』, 『고고역사학지』17·18, 동아대학교박물관, 2002.

의 지표인 型式 외에 樣式이라는 분류단위가 왜 필요한가를 고민해야 바른 양식 개념을 정립할 수 있다. 새로운 樣式 개념을 설정하기 위해 동반유물의 중요성이 왜 필요한지를 살펴본 후, 신라토기양식(新羅樣式)에 대비되는 가야토기양식(加耶樣式)을 정립해 보고자 한다.

1. 동반유물로서 樣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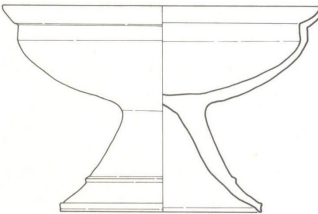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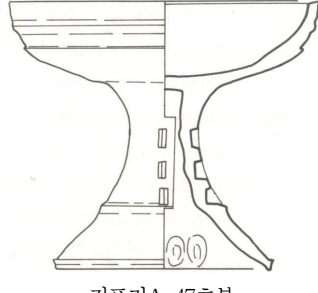

고고학을 고고자료를 통해 과거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는 학문으로 정의한다면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우선 인간이 만든 수많은 인공물과 일부 자연물을 분류하여야 한다. 고고자료를 분류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용도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용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토기에 있어서도 기대와 같이 용도를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고배와 같이 용도를 모르는 경우 형태가 비슷한 것끼리 모아서 분류군을 만든다. 이 때 용도에 의해 구분한 계급을 器種이라고 하며, 고배, 기대 등으로 구분한다.

고고학은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시간을 대단히 중요시한다. 이 때문에 같은 용도를 모아서 다시 시간 순으로 배열하여 型式을 만들어 내는데 이러한 작업을 型式學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금관가야 고배를 편년하기 위해 50점의 고배를 모아 시간 순으로 나열해보니 한 개의 군이 10점씩 5개의 군으로 나눌 수 있었다고 가정하면 이 때 하나의 군이 型式이 된다. 型式의 구분하는 기준은 보통은 시간적 속성 1~2개로 설정한다. 10개의 고배가 같은 型式에 속하여 무리를 이루지만 서로 완전한 닮은꼴이 아니다. 또 型式의 유행 시간이 50년이라고 가정한다면 수많은 도공이 여러 대에 걸쳐 같은 型式을 계속해서 생산했을 것이다. 이 때문에 型式을 정의할 때 어떤 속성을 기준으로 정의해야 하며, 생물학에 있어 인간을 직립 보행하는 동물로 정의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다.³²⁾

한편 型式은 시간의 지표일 뿐 아니라 공간의 지표도 된다. 가야는 수많은 정치체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비록 김해 금관가야와 함안 아라가야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어도 공간적 차이가 토기에 표출될 수 있다. 이런 차이를 지역색이라고 하며, 토기의 型式 비교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다. 대표적 예가 필자가 정의한 4세기 초 김해의 외절구연무개고배라는 型式과 함천의 팔자형각부무개고배라는 型式이다. 4세기 초라고 하는 시점은 필자 나름의 연대관이기 때문에 학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동일한 시간을 나타내는 표준 지표가 있어야 정확

³²⁾ 실제 지구상의 70억 인간을 서로 비교하면 똑 같은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

한 지역색을 추출할 수 있다. 시간대가 다르면 당연히 型式이 다르므로 정확한 지역색을 추출할 수 없다. 같은 시간대의 지표는 도 3에서와 같이 동반유물을 통하여 설정할 수 있다. 中形壺의 한 型式인 中頸壺는 김해 칠산동 11호분과 합천 저포리A 47호분에서 출토되고 있다. 中頸壺는 속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동일 시간대에 유행하는 같은 型式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동반하는 고배의 경우 여러 속성에 있어 차이점이 많으므로 지역색을 뚜렷이 구분할 수 있다. 동반유물인 중형호의 型式인 中頸壺에 의해 같은 시간대의 지표를 구함과 동시에 高杯의 型式인 외절구연무개고배라·팔자형각부무개고배를 통해서 지역색을 추출할 수 있었다.

器種 樣式	고배(無蓋)	중형호(中頸壺)
김해	 칠산동 11호분	 칠산동 11호분
합천	 저포리A 47호분	 저포리A 47호분

도 3. 동반유물로 본 김해양식과 합천양식

이처럼 型式은 시간의 지표인 동시에 공간의 지표이기도 하다. 고배의 型式 비교에 의해 4세기 초 김해의 金官國과 합천 多羅國의 물질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지역색 추출에 있어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시간 개념이지 공간 개념이 선행해서는 안 된다. 동일한 시간에서 공간적

차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지역색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동일 시간대의 지표는 동반유물인 중형호의 型式인 中頸壺의 비교에 의해 구할 수 있다. 한 기종의 型式 비교³³⁾만으로는 동일 시간대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두 기종의 型式 비교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樣式이라는 분류단위가 필요하게 된다. 樣式은 정확한 지역색 추출을 위해 도 3에서와 같이 동반하는 두 기종 이상의 각 型式(type)의 조합이라고 정의되어야 한다. 즉 동반하는 고배의 型式·중형호의 型式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樣式은 동반하는 型式(type)의 조합이지, 이희준이 정의한 形式(form·器種)의 조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색 추출을 위해 고고학에서 樣式이 필요한 것 외에 보다 근본적인 것은 고고학의 최종 목표인 문화를 복원하기 위해서이다. 문화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고고학적으로 알기 쉽게 문화를 정의한 학자는 V.G. Childe이다. V.G. Childe는 문화를 반복되어 출토되는 고고학적 型式(types)의 조합(asssemblage)이라고 정의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型式의 조합이 필요하다.³⁴⁾ 고고학적으로 가야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유적·유물이 동원되어야 하지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간단한 분류체계가 필요하다. 樣式 개념은 고고학의 분류체계의 하나로서 V.G. Childe가 정의한 문화와 비슷한 型式의 조합이며, 이러한 조합은 동반유물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樣式은 동반하는 두 器種 이상의 각 型式(type) 조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加耶樣式

앞 장의 낙동강 동·서안 양식론의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서안양식(가야토기)은 현재 가야고분 출토 자료와 비교하면 갭이 상당히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동안양식(신라토기)과 대비되는 새로운 加耶樣式을 정립하여야 한다. 고고학은 문헌학과 같이 역사학의 한 분야일 뿐 아니라 과학적인 학문이다. 양식은 동반하는 두 기종 이상의 각 型式 조합으로 정의 할 수 있었다. 양식을 정의하는데 있어 많은 기종의 型式으로 정의한다면 정확한 역사·문화 복원이 될 것이다.

³³⁾ 한국 고고학에서 토기 편년은 학자마다 다른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러므로 고배 혹은 기대와 같이 한 기종의 型式을 서로 비교하면 같은 시간대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올바른 지역색을 추출할 수 없다.

³⁴⁾ V.Gordon Childe, 『Piecing Together the Past』, Routledge & Kegan Paul Ltd, 1956, 16쪽.

동반관계 양식명	유구명	동반유물			曆年代
		고배	증형호	기대	
1양식	구지로 28호분				*後漢鏡 (內行花文鏡) 200
2양식	양동리 235호분				
3양식	구지로 9호분				
4양식	대성동 47호분				*弥生時代 中廣形銅矛 300
5양식	대성동 3호분				
6양식	칠산동 20호분				
7양식	화명동 2호분				*日本 宇治市街 遺蹟 389년 나이테 연대 400
8양식	칠산동 33호분				
9양식	죽곡리 29호분				
10양식	죽곡리 59호분				500
11양식	죽곡리 51호분				
12양식	예안리 46호분				
					*금관가야 멸망

도 4. 금관가야 양식

그러나 너무 많은 기종의 型式으로 양식을 정의하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바람직한 양식은 동반하는 2~3개의 기종의 型式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김원룡의 양식론이 고고학사에서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은 2~3개의 기종과 型式³⁵⁾으로 낙동강 동·서안양식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동반하는 2~3개의 기종의 형식으로 가야토기 양식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한정된 시간대가 정해져야 한다. 그 다음 선택된 기종을 형식 분류하여 조합을 구성해야 되는 아주 복잡한 작업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가야 시작부터 끝까지 토기 양식을 설정하는 것은 너무 방대한 작업이므로 지면상 불가능하다.³⁶⁾ 여기에서는 가야토기 양식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보다 김원룡이 설정한 동·서안 양식론 중 특히 서안양식에 대해 앞 장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재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기로 한다.

굽다리접시(고배)·긴목항아리(장경호)³⁷⁾·기대에 의한 김원룡의 서안양식은 앞에서 정의한 양식 개념을 바르게 적용시키려면 우선 기종명과 형식명이 정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고배·기대는 지금도 사용하는 기종명이지만 장경호는 중형호의 형식명이다. 中形壺는 필자가 정의한 기종명으로 “화로형·발형·원통형기대가 받치는 호”라고 정의한 바 있다.³⁸⁾ 가야토기에서 기대가 받치는 호는 장경호 뿐 아니라 단경호·중경호·유개장경호가 있으며 短頸壺 → 中頸壺 → 長頸壺 → 有蓋長頸壺로 型式 변화하기 때문에 장경호는 기종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동반하는 고배·중형호·기대의 型式 조합에 의한 양식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은 고배·중형호·기대의 型式 조합을 구하기 위해 어떤 특정한 시간을 설정해야 한다. 김원룡도 樣式論의 초석이 된 『新羅土器 研究』에서 ‘5세기에 들어가면, 이라고 시간을 한정하고 있어 여기서는 5세기 전반으로 시간을 한정한다. 그런데 문제는 학자들마다 5세기 전반의 토기 型式이 다르다는 점이다. 다행히 최근 일본 京都 宇治市街(우치시가이)遺蹟에서 나이테연대결정법에 의해 A.D. 389년에 제작된 가야토기를 시원으로 하는 須惠器가 출토되어 토기 편년에 중요한 절대연대를 얻을 수 있었다.³⁹⁾ 宇治市街遺蹟 출토 토기의 시원은

³⁵⁾ 김원룡은 기종과 型式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필자의 분류체계에서 고배는 기종에 해당되고 장경호는 型式에 해당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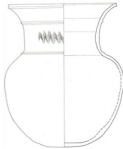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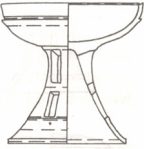

³⁶⁾ 예를 들어 400년간 가야토기 양식이 50년마다 변화한다고 가정하면 8개의 양식이 만들어져야 된다.

³⁷⁾ 김원룡이 동·서안 樣式論에서 거론한 장경호는 아마 유개장경호를 가리키는 것 같다.

³⁸⁾ 박광춘, 『중형호로 본 대가야 연맹설의 검토』, 『동아문화』2·3 합집, 동아세이문화재단연구원, 2007.

금관가야 4세기 후엽 양식에서 구할 수 있어 이 연대를 기준으로 도 4에서와 같이 동반유물을 통한 금관가야 토기 양식(고배·중형호·기대의 型式 조합)을 설정할 수 있었다. 이 도에서 5세기 초의 금관가야 9양식인 죽곡리 29호분을 출토 고배·중형호의 型式 조합(이단고호투창유개고배1型式·경부에 1단 파상문이 있는 장경호)을 지표로 한다.⁴⁰⁾ 5세기 이후 기대가 동반하지 않은 것은 4세기 말 대부장경호가 출현하기 때문이다.

절대연대를 통한 5세기 초의 금관가야 토기 양식이 정해졌으므로 김원룡의 서안양식과 일치하는지 도 5에서 비교해 보았다. 이 도에서 서안(가야)양식과 일치되어야 할 금관가야 고배 투창 배치와 완전히 다를 뿐더러, 중형호의 경우도 일치하지 않는다. 금관가야는 신라와는 국경을 마주하고 있어 영역을 지키기 위해 많은 국력을 소비하고 있었지만, 엄연히 가야를 대표하는 핵심 정치체의 하나였으며 문화 선진국이었다. 만약 금관가야 토기 양식이 加耶樣式에 포함되지 않으면 加耶樣式은 절름발이 양식이 된다. 김원룡도 금관가야가 가야의 가장 큰 정치체 하나였으므로 금관가야 토기를 서안양식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당시 금관가야 토기 편년과 출토지가 확실한 자료가 많지 않아 정확한 금관가야 양식을 반영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도 4의 금관가야 6양식인 4세기에 편년되는 칠산동 20호분 출토 이단직렬투창무개고배를 5세기로 편년하였기 때문이다.⁴¹⁾ 이단직렬투창무개고배는 금관가야 뿐 아니라 4세기 가야·신라에서 이미 유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투창배치는 가야토기와 신라토기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型式	금관가야(박광춘)		서안양식(김원룡)	
	고배	중형호	굽다리 접시	장경호
이단투창고배 + (무개·유개) 장경호	 죽곡리29호분	 죽곡리29호분	 불명	 지산동33호분

도 5. 금관가야양식과 서안양식 비교

39) 浜中邦弘, 『宇治市街遺蹟の調査 -渡來人の足跡-』 『月刊文化財』506, 2005 ; 浜中邦弘·田中元浩, 『初期須惠器と實年代との狹間』, 『河内湖周邊に定着渡來人』, 大阪府立近つ飛鳥博物館 43, 2006.

40)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金海竹谷里遺蹟 I』, 2009.

41) 경성대학교박물관, 『金海七山洞古墳群』, 1989

고배 투창 배치가 직렬이라는 서안양식의 기준은 금관가야 뿐 아니라 창녕의 비화가야도 제외되므로 고배 외에 중형호에서 새로운 기준을 찾아보기로 한다. 앞 도 4의 금관토기 樣式 변화에서 8樣式으로 설정된 칠산동 33호분에서 새로운 대부장경호가 출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5세기에도 9·10양식과 같이 무개장경호가 계속해서 유행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종래 금관가야 토기 연구에 있어 대부장경호를 너무 중시한 나머지 무개장경호는 무시하였다. 심지어 김해와 창녕에서 대부장경호와 더불어 교호투창유개고배가 5세기 이후 확산되는 것을 신라에 정치적으로 예측된 증거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부장경호와 교호투창유개고배가 신라에서 가장 먼저 생산되어 유통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가능하다.

무개장경호는 가야 토기 중에서 용도를 정확히 알 수 있고, 대부분의 고분에서 출토되기 때문에 편년과 지역색 연구에 있어 활용하기 쉽다. 특히 이해하기 쉽게 型式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型式學의 원리를 설명하는데 있어 표본이 되는 중형호의 한 型式이다. 필자는 가야 중요 정치체와 고분의 토기 편년에 있어 수많은 기종 중에서 中形壺를 중심으로 型式을 추출하여 검증한 후 상대 서열을 결정하는데 활용했다. 중형호의 型式은 短頸壺 → 中頸壺 → 無蓋長頸壺로 변천하며 이러한 경향은 가야 뿐 아니라 신라에도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신라의 무개장경호는 도 6에서 다변량해석의 한 수법인 주성분분석⁴²⁾을 통해 가야 무개장경호와 비교하면 구연부가 거의 직립한다.⁴³⁾ 종래 김원룡의 낙동강 동·서안양식은 고배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장경호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 여기에서는 중형호의 型式인 장경호를 중심으로 5세기 초 신라와 가야의 대표적 고분을 선택하여 비교해 보기로 한다.⁴⁴⁾ 도 7은 중형호의 型式을 무개장경호, 유개장경호, 대부장경호로 구분하고, 고배는 무개와 유개로 나누어 비교해 보았다.

이 도에서 알 수 있듯이 고배의 투창의 형태와 배치가 加耶樣式과 新羅樣式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경주 월성로 가-13호분에서 직렬투창고배가 출토되고 있으며, 합천 옥전 38호 목곽묘, 고성 내산리고분군과 의령 천곡리고분군 등에서도 이단교호투창고배가 출토되고 있다.⁴⁵⁾ 이 외 함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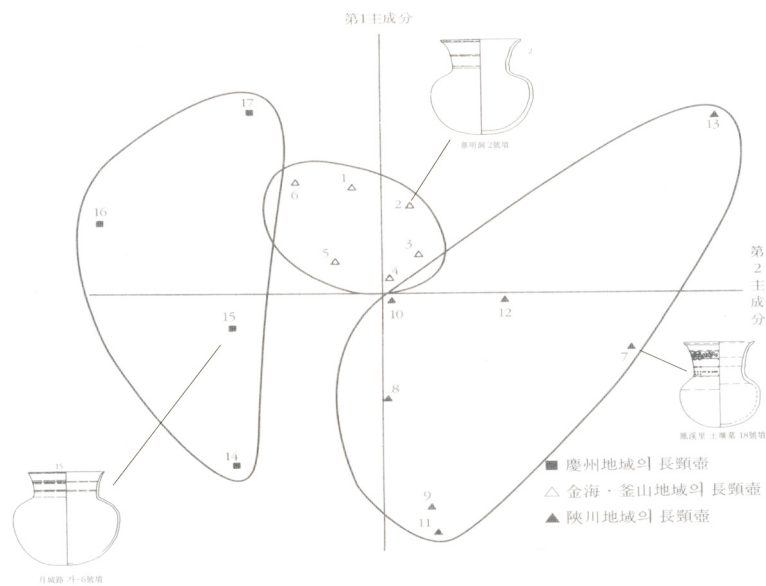
42) 田中豊 外, 『パソコン統計解析ハンドブック(多變量解析編)』, 公立出版株式會社, 1989; 奥野忠一 外, 『多變量解析法』, 日科技連, 1985.

43) 박광춘, 『일본 九州 북부지역의 신라·가야계 유적·유물』, 『한국고대사논총』3, 한국고대사학회 연구소, 1992.

44) 5세기 초라는 시간적 지표는 김해 죽곡리 29호분 출토 장경호와 고배를 지표로 한다.

45) 국립경주박물관, 『慶州市月城路古墳群』, 1990; 경상대학교박물관, 『陝川玉田古墳群IV』, 1993.

의령에서는 화염형투창과 함께 일단투창도 보이고 있어 김원룡의 낙동강 동·서 안양식의 지표의 하나인 투창의 형태와 배치는 적용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중형 호의 型式인 유개장경호와 대부장경호에 의해 가야와 新羅樣式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 더욱이 동안양식의 지표인 대부장경호가 경주 월성로 가-13호분에서 출토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서안양식의 지표인 유개장경호는 공교롭게 창녕 교동 3호분과 고령 지산동 33호분에서 같이 출토되고 있어 최초 생산지가 어딘지를 추적하는 것도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가야·신라에서 가장 고식인 유개장경호와 대부장경호는 김해 대성동 1호분 부곽과 김해 칠산동 33호분에서 출토된 것으로 보고 있다.⁴⁶⁾



도 6. 8항목 주성분분석에 의한 가야·신라 무개장경호 비교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固城內山里古墳群II』, 2005 ; 경상대학교박물관, 『宜寧泉谷里古墳群 I』, 1997.

46) 경상대학교박물관, 『金海大成洞古墳群IV』, 2010.

器種 型式 樣式	중 형 호			고 배	
	무개장경호	유개장경호	대부장경호	무개	유개
경주 (월성로 가-13호분)					
김해 (죽곡리 29호분)					
창녕 (교동 3호분)					
함안 (도항리 27호분)					
합천 (옥전 38호분)					
고령 (지산동 33호분)					
의령 (예둔리 57호분)					

도 7. 5세기 전반 신라·가야 小樣式

이단투창고배의 투창의 형태와 배치와 중형호의 型式(有蓋長頸壺·臺附長頸壺)에 의해 加耶樣式과 新羅樣式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면 새로운 구분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구분 기준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무개장경호의 경부의 형태에 의해 加耶樣式과 新羅樣式을 구분할 수 있었다. 중형호의 한 型式인 무개장경호는 도 7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에 상관없이 경부 형태가 나팔상으로 벌어지고 파상문이 시문되어 있다. 이에 비해 신라 무개장경호는 거의 직립하고 문양이 시문되지 않는다. 6세기가 되면 무개장경호는 더욱 확연히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가야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부가 더욱 길어지면서 동부최대경에 비해 구연부가 넓은 광구장경호로 변화한다. 신라의 무개장경호는 대부장경호가 유행함에 따라 점차 소멸된다. 고배의 型式인 이단투창고배의 경우 투창의 배치와 형태가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으며, 단지 4세기에는 가야와 신라 구분 없이 직렬투창을 공통으로 사용하다가 5세기에 와서 금관가야·비화가야를 제외한 지역에서 교호투창에 비해 직렬투창이 보다 많이 유행한다. 다만 아라가야의 경우 화염문과 이단투창이 같이 유행하기도 한다. 김원룡의 낙동강 서안양식에 대비되는 5세기 전반의 加耶樣式은 동반하는 중형호의 한 型式인 나팔상무개장경호(경부가 나팔상으로 벌어지면서 파상문이 1~2단으로 시문됨)와 고배의 한 型式인 이단투창유개고배로 설정할 수 있다.

V. 가야토기 小樣式(지역양식)

加耶樣式이 新羅樣式과 대비되는 개념이라면 소양식은 가야 지역양식을 반영한 개념이다. 즉 가야라는 일정 공간 내에 있어서 지역 집단의 특정 생활상이 토기에 반영되어 표출된 것으로 금관가야, 아라가야, 비화가야, 소가야, 대가야 외에 수많은 소규모 가야 정치체의 토기문화 즉 지역색을 가리킨다. 그래서 필자는 가야의 어떤 특정 정치체의 토기 문화를 논할 경우 양식보다 작은 공간으로서 소양식이라는 양식명을 사용하여 구분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⁴⁷⁾ 다만 소양식의 개념은 앞에서 정의한 양식과 같지만, 공간적으로 축소된 개념이다.

최근 가야토기 지역색 논의가 점차 활발해지면서 5세기 이후의 지역색에 대한 논의도 점차 활기를 띠게 되면서 4세기 이전의 지역색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5세기 이후의 가야 지역양식을 논하는데 있어 대가야양식

⁴⁷⁾ 박광춘, 앞의 논문, 1994.

론이 큰 비중을 차지함으로 해서 나머지 지역 양식에 대한 논의는 겨우 아라가야 혹은 소가야에 한정되고 있다.⁴⁸⁾ 그러나 앞 장에서 5세기 초의 각 지역 양식을 비교해 본 결과 대가야양식론은 양식 개념도 확실하지 않을 뿐 더러, 설사 지산동고분 출토 토기를 지표로 한다고 해도 주변 지역에서 동일한 양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만약 대가야양식론을 주장하는 일부 학자가 각 양식이 동일한 시간대가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앞 장에서 설정한 加耶樣式을 구성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는 중형호의 型式인 5세기 초의 무개장경호는 6세기에 광구장경호로 型式 변천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 8에서와 같이 6세기 전반의 각 지역 양식을 작성하였다.

이 도에서 동일 시간대를 나타내는 지표는 광구장경호와 일단투창유개고배이다. 가야 중형호는 短頸壺 → 中頸壺 → 無文樣長頸壺 → 波狀文長頸壺 → 廣口長頸壺로 型式 변천하므로 廣口長頸壺는 가장 新型式이다.⁴⁹⁾ 따라서 도 8의 광구장경호가 출토된 고분은 6세기 전반에 축조된 고분들이다. 특히 김해 예안리 46호분과 같이 광구장경호와 일단투창유개고배가 동반한다면 더욱 확실하다.^{50) 51)} 신라의 대부장경호는 5세기 이후 유행하기 때문에 정확한 역연대를 추정하기 어렵지만, 가야의 광구장경호는 6세기 이후에 유행한다. 이 도에서 우선 경주와 김해양식을 비교하면 대부장경호와 일단투창유개고배가 유행한다는 것은 비슷하지만 경주에서는 광구장경호가 유행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대부장경호와 일단투창유개고배를 비교하면 많은 속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금관가야양식은 新羅樣式에 동화되지 않고 존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야 각 지역에서 광구장경호가 광범위하게 유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오히려 유개장경호보다 유행 범위가 넓다. 유개장경호는 소위 대가야양식의 지표가 되는 중형호의 한 型式이지만 도 8에서 비교하면 같은 형식이라고 볼 수 없다. 無蓋長頸壺가 긴 시간에 유행함에 따라 無文樣長頸壺 → 波狀文長頸壺 → 廣口長頸壺로 형식 변천하는 것처럼 有蓋長頸壺도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시 小型式⁵²⁾으로 형식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지산동고분 출토 일단투창유개고배도 다른 지역 고분 출토 일단투창유개고배와 비교하면 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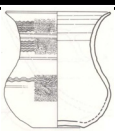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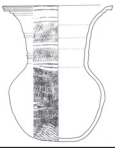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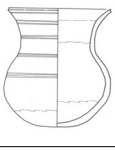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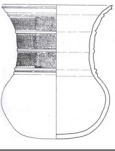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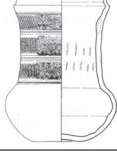








48) 박승규, 「대가야토기의 확산과 관계망」, 『한국고고학보』49, 한국고고학회, 2003 ; 「토기 양식과 정치체」, 『樣式의 考古學』, 한국고고학회, 2008.

49) 朴廣春, 「韓國阿羅加耶編年と時期區分」, 『先史學·考古學論究(甲元眞之先生退任記念)』V, 龍田考古學會, 2010 ; 박광춘, 앞의 책, 2006, 149쪽.

50) 고고학에서 동반유물은 시간적 지표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51) 부산대학교박물관, 『金海禮安里古墳群 I』, 1985.

52) 박광춘, 앞의 논문, 1994.

器種 型式 樣式	중 형 호			고 배
	광구장경호	유개장경호	대부장경호	일단투창유개고배
경 주 (월성로가-18호분)				
김 해 (예안리46호분)				
함 안 (도항리47호분)				
고 성 (송학동1C호분)				
의 령 (천곡리2호분)				
산 청 (생초24호분)				
남 원 (월산리M1-A호분)				
함 천 (옥전 6호분)				
고 령 (지산동125호분)				

도 8. 6세기 전반 신라·가야 小樣式

은 형식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II장의 형식 개념에서 언급한 것처럼 형태만 다르면 다른 형식으로 구분하여 유행기간을 12.5년 혹은 25년으로 추정하여 세밀한 편년을 하고 있는데 비해, 양식은 반대로 특정 형식(유개장경호·일단투창유개고배)이면 동일한 樣式으로 분류하는 극단적 모순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의령·산청·남원의 고분 출토 일단투창유개고배는 소가야양식인데도 불구하고 대가야양식론이 계속 양산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대가야양식론은 고령지역 혹은 극히 주변지역에 한정해서 적용시켜야 되지 더 이상 가야 서부지역으로 확대시켜서는 안 된다. 최근 조사된 합천 삼가고분군에서도 소가야양식에 속하는 토기들이 출토되고 있어 합천지역도 대가야양식이 아닌 多羅國의 독자적 토기 양식이 있다.⁵³⁾ 불명확한 양식론에 의거하여 유개장경호만 출토되면 대가야양식에 포함시키는 고고학적 해석은 과학적이고 객관적 방법이 될 수 없다. 더욱이 현재 문헌에 기록된 수많은 가야 정치체는 언제 존속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백제 성왕에 의해 A.D. 541년과 A.D. 544 두 차례 백제에서 개척되었던 소위 任那復興會議에 기록된 8개의 가야 정치체는 거의 확실하다.⁵⁴⁾ 비록 『日本書紀』에 기록되어 있어 사료의 신빙성에 의문을 가질 수도 있으나 이 당시 倭도 이 회의에 참가하고 있어 불신하기 어렵다. 6세기 중엽에 8개의 정치체가 존속되었다면 6세기 초는 금관가야와 함께 더 많은 정치체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대가야양식론에 근거한 대가야연맹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대가야 왕이 임나부흥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토기 양식의 비교와 문헌자료를 참고하면 대가야양식론은 검증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고고학에 있어 대가야양식론이 주된 학설로 자리 잡고 있음으로 해서 문헌에 기록된 일부 정치체의 문화가 제대로 복원되지 못하고 있다면 새로운 이론으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다른 정치체에 비해 일찍 신라에 멸망되었던 금관가야 문화도 이들 정치체의 문화와 함께 새로운 양식 개념에 의해 올바르게 복원되어야 한다.

VI. 맺음말

이제 한국고고학의 역사도 반세기를 넘어서는 시점에 와 있다. 많은 역경이

⁵³⁾ 경남발전연구원역사문화센터, 『합천 삼가고분군(II지구)발굴조사 현장설명회』, 2010 ; 동서문물연구원, 『합천생비랑-쌍백도로확장구간내유적』, 2010.

⁵⁴⁾ 岩波書店, 『日本書紀(下)』, 1965.

있었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기를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 유물과 유구의 편년에 치중하게 되면서 시간의 지표인 型式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고고학 분류체계에 있어 가장 아래에 위치하는 型式은 시간이라는 지표 외에 공간적 지표도 아우르고 있다. 이 때문에 型式이 김원룡의 동·서안양식과 같은 樣式과 개념상 혼동될 소지가 많았다. 더 나아가 가야 고고학에서는 가야 동쪽에 위치하는 김해와 창녕에서 교호이단투창유개고배가 5세기 이후 확산되는 것을 정치적으로 신라에 예속되었다고 해석하는가 하면, 가야 서쪽에 위치하는 함천, 남원, 함양, 하동, 여수 등에서 유개장경호가 출토되면 정치적으로 대가야에 예속되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극단적 방법론을 적용하는 이러한 해석은 양식 개념을 정확히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연대 추정은 형태만 다르면 다른 형식으로 구분하여 세밀한 편년을 하고 있는데 비해, 樣式은 반대로 특정 형식(교호이단투창유개고배·유개장경호)이면 동일한 樣式으로 분류하고 있다. 고고학 방법론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분류가 어떤 기준도 없이 편의적으로 행해지고, 해석도 연구자 마음대로 한다면 과연 한국 고고학을 외국에서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다.

종래 樣式 개념은 용도의 지표인 形式(器種)에 의해 설정되거나, 고배 투창, 유개장경호 등에 의해 설정되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었다. 새롭게 설정된 양식 개념은 시간과 공간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동반하는 두 器種 이상의 각 型式 조합”으로 설정하였다. 새로운 樣式 개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반유물과 시간·공간의 지표인 型式 조합이다. 이것에 의해 5세기 전만 낙동강 서안양식과 대비되는 加耶樣式을 새롭게 모색했다. 낙동강 동안양식(新羅樣式)은 직립하는 경부의 무문양무개장경호와 이단투창유개고배의 조합인데 비해 加耶樣式은 나팔상으로 벌어지고 경부에 파상문이 1~2단 시문된 무개장경호와 이단투창유개고배의 조합으로 설정했다. 6세기 전반의 加耶樣式은 廣口長頸壺와 일단투창유개고배의 조합로 설정한 다음 가야 小樣式(지역양식)을 비교해 본 결과 대가야양식론은 검증할 수 없었음을 밝혔다. 특히 의령·산청·남원의 주요 고분군 출토 일단투창유개고배는 대가야양식이 아닌 소가야양식인 것을 명확히 했다. 양식을 적용하는데 있어 예외를 고려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다면 고고학에서 방법론은 왜 필요한지 되묻고 싶다. 앞으로 새롭게 정립시킨 양식론을 기반으로 『三國遺事』와 『日本書紀』에 기록된 수많은 가야 정치체의 문화를 복원하고 이해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투고일 2012년 8월 15일 | 심사완료일 2012년 8월 28일 | 게재확정일 2012년 9월 3일 ■

참고문헌

<국내>

- 김원룡, 『新羅土器 研究』, 을유문화사, 1960.
- 계명대학교박물관, 『高靈池山洞古墳群』, 1981.
- 부산대학교박물관, 『金海禮安里古墳群 I』, 1985.
- 奥野忠一 外, 『多變量解析法』, 日科技連, 1985.
- 田中琢, 『型式學の問題』, 『日本考古學を學ぶ(1)』, 有斐閣選書, 1985.
- 김원룡, 『韓國考古學概說』, 一志社, 1986.
- 경상대학교박물관, 『陝川玉田古墳群 I』, 1988.
- 경성대학교박물관, 『金海七山洞古墳群』, 1989.
- 국립경주박물관, 『慶州市月城路古墳群』, 1990.
- 경상대학교박물관, 『陝川玉田古墳群IV』, 1993.
- _____, 『宜寧禮屯里古墳群』, 1994.
- 영남문화재연구원, 『高靈池山洞古墳群III』, 1994.
-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咸安道項里古墳群 I』, 1997.
- 경상대학교박물관, 『宜寧泉谷里古墳群 I』, 1997.
-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固城內山里古墳群II』, 2005.
- 경상대학교박물관, 『山淸生草古墳群』, 2006.
- 박광춘, 『새롭게 보는 가야고고학』, 학연문화사, 2006.
- _____, 『일본 九州 북부지역의 신라·가야계 유적·유물』, 『한국고대사논총』3, 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 1992.
- _____, 『加耶土器의 分類單位 設定과 編年』, 『加耶文化』7, 加耶文化研究院, 1994.
- _____, 『3~4세기에 있어 가야토기 지역색 연구』, 『한국상고사학보』24, 한국상고사학회, 1995.
- 이희준, 『토기로 본 大伽耶의 圈域과 그 변천』, 『加耶史研究 -대가야의 정치와 문화』, 慶尙北道, 1995.
- 박광춘, 『수리 형식학의 모색』, 『영남고고학』20, 영남고고학회, 1997.
- _____, 『가야토기의 시원과 김해·부산지역 토기 편년 재검토』, 『영남고고학』27, 영남고고학회, 2000.
- _____, 『월산리고분 문화의 재조명』, 『고고역사학지』17·18, 동아대학교박물관,

2002.

- 박승규, 『대가야토기의 확산과 관계망』, 『한국고고학보』49, 한국고고학회, 2003.
- 박광춘, 『중형호로 본 대가야 연맹설의 검토』, 『동아문화』2·3 합집,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07.
- 박승규, 『토기 양식과 정치체』, 『樣式의 考古學』, 한국고고학회, 2008.
-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金海竹谷里遺蹟 I』, 2009.
- 박천수, 『5~6세기 대가야의 발전과 그 역사적 의의』, 『고령지산동44호분』, 경북대학교박물관, 2009.
- 이성주, 『新羅·加耶 土器樣式の 生成』, 『한국고고학보』72, 한국고고학회, 2009.
- 경성대학교박물관, 『金海大成洞古墳群IV』, 2010.
- 경남발전연구원역사문화센터, 『합천 삼가고분군(Ⅱ지구)발굴조사 현장설명회』, 2010.
- 동서문물연구원, 『합천생비랑-쌍백도로 확장구간내유적』, 2010.
- 조성원, 『土器文化로 본 三國時代 洛東江 河口의 交流樣相』, 『삼국시대 남해안지역의 문화상과 교류』, 한국고고학회, 2011.

<국의외>

- 岩波書店, 『日本書紀(下)』, 1965.
- 田中豊 外, 『パソコン統計解析ハンドブック(多變量解析編)』 公立出版株式會社, 1989.
- 朴廣春, 『韓國陝川地域における土壙墓出土土器の編年的研究』, 『古文化談叢』22, 1990.
- 浜中邦弘, 『宇治市街遺蹟の調査-渡來人の足跡-』, 『月刊 文化財』506, 2005.
- 浜中邦弘·田中元浩, 『初期須惠器と實年代との狹間』, 『河内湖周邊に定着渡來人』, 大阪府立近つ飛鳥博物館 43, 2006.
- 朴廣春, 『韓國阿羅加耶編年と時期區分』, 『先史學·考古學論究(甲元眞之先生退任記念)』V, 龍田考古學會, 2010.
- V.Gordon Childe, 『Piecing Together the Past』, Routledge & Kegan Paul Ltd, 1956.
- Clive Orton, 『MATHEMATICS IN ARCHAEOLOGY』, William Collins Sons & Co, Ltd, 1980.

Abstract

Typology of Gaya Pottery

Park, Kwang-Choon

Representative Gaya pottery style a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East and West types of Nakdong River and DaeGaya types. The word type had been used since 1960 when Kim Won-ryong had been named East and West types of Nakdong River. However, there were few researches on the naming issue after the settlement of the term 'type'. This is caused by lack of the perception by archaeologist including myself who study the meaning of the typology under the category of classification. Therefore archaeologists misused the meaning of the form(index of the usage), type and style(index of time and place) and this brought more difficultie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type'.

First of all, the meaning of the 'type' will be discussed and then this work will highlight other problems to interpret the definition of two Gaya pottery types aforementioned. As a result, the definition given by Kim Won-ryong had been proved to miss the meaning of 'type'. Furthermore, compared to the Eastern type(Silla pottery), Western type(Gaya pottery) had been hold several problematic issues. It is same to the DaeGaya typology and also this typology could not explain the pottery found from the tombs of Hapcheon, Namwon, Hamyang, Hadong and Yeosu. Therefore this work mainly discussed the long-necked jar setting with the dish with a lid. Newly adopted types are usually pointed around Seomjin-River and they are primarily set with more than two different types.

This work therefore mainly highlights new Gaya type pottery compared to Silla pottery and also insists the importance of each different locality. Among the historical archaeology, the record of the history should not be ignored. However, it should not be trusted by all means.

Key Words : kaya pottery, style, association, types assemblage, substyle